

1973년 도입 병역특례… ‘고무줄’ 변천

2002년 월드컵·2006년 WBC때도 형평성 논란
국방부·병무청, 타국 사례도 파악 못해 비판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 공로가 있는 예술·체육인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고자 45년 전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대상자를 늘리고 줄이기를 반복하는 등 고무줄처럼 변천을 거듭해왔다.

1973년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국위선양’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박정희 시대의 ‘홍보성’ 기획이 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선발됐다는 지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특례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

▶비판 제기되면 고치길 반복

4일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시된 예술체육요원 소개자료를 보면 이 제도는 시대에 따라,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고치기를 반복해왔다.

1973년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한국제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면 특례 혜택을 받았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입상자가 급증해 논란이 일자 1990년 4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특

례 대상이 축소됐다. 2002년에는 축구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가 추가된다.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대회 4위 이상 입상자도 포함됐다. 두 대회에서 특례가 늘면서 병역 형평성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2007년, 축구 월드컵과 WBC대회 입상자가 특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체육분야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특례대상이다.

▶형평성 논란… 행정은 주먹구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병역 의무 형평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그런데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병역특례의 범위와 대상이 원칙 없이 변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예술체육 분야의 국위선양 기준이 단 한 번의 입상 성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각종 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자에게 특례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중 우리와 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운영 실태도 참고하고, 해당 국가 병무행정 부처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세밀한 연구 끝에 특례 범위 확대와 축소 등의 제도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렛츠런파크 제주, 9월 경마시행계획 발표 8일 5경주 한라일보배 대상경주 등 68개 시행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가 한라일보배 대상경주 등을 포함, 9월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일 렛츠런파크 제주에 따르면 9월에는 4주, 8일간 68개의 제주시행 경주가 펼쳐진다. 이 가운데 38개 경주는 서울과 부산경남 경마장으로 위성 중계된다. 출전마는 653두로 경주 당 평균 9.6두가 출전한다.

금요경마는 제주 시행 경주와 부산경남 중계 경주로 운영된다. 토요경마는 제주 시행 경주와 서울 중계로 이뤄진다. 제25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는 8일 토요일 5경주로 진행된다.

하루 총 발매 경주 수는 18~19개로 계획됐다. 일반경주에는 10두, 대상·특별경주에는 12두까지 경주마가 출전한다.

금요일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전 11시30분,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6시다. 토요일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전 10시45분,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6시다. 21~23일 추석연휴는 휴장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인니 발리체육회 스포츠 교류 협약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제주체육 역량 강화 기대

제주도체육회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주 체육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 아시아 남방 국가 지역과의 문호를 확대했다.

양측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훈련장 제공을 비롯해 지도자 등 우수 체육인재 운영 시스템, 스포츠과학 연구와 학술 등 4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53회 제주도민체육대회 개최 시기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는 고정신 부회장을 단장으로 종목간 교류 추진을 위해 체조(회장 강창용), 레슬링(회장 고창범), 자전거(회장 고현남), 복싱(회장 문세호), 철인3종(회장 조남식) 등 5개 종목의 단체장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된 협약 추진단을 파견했다. 파견 기간

중 제18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자카르타를 방문해 경기를 참관하고 향후 제주체육의 국제 스포츠 교류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고정신 부회장은 “이번 교류 협약 체결로 중국과 일본 중심의 스포츠 교류에서 다양한 국가의 지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제주체육의 지평을 넓혔다”며 “제주를 거점으로 한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로 지역사회·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와 제주체육 역량 강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해 4월 말레이시아 국립체육회, 9월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상호 스포츠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금탁기자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4일 오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시험무대 A매치 6경기 확정

7일 코스타리카·11일 칠레와 사령탑 데뷔전
10월 우루과이·파나마·11월 호주·우즈베크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여섯 차례 평가전 상대가 모두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다음 달(10월) 12일 우루과이, 15일 파나마와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또 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 원정으로 17일 호주와 맞붙고, 20일에는 우즈베크스탄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이에 따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국 사령탑을 맡은 벤투 감독은 여섯 차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로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출격한다.

벤투 감독은 오는 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를 통해 한국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이어 11월에는 남미의 ‘북병’ 칠레와 맞닥뜨린다.

10월 A매치 첫 상대인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의 강팀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8강에 올라 우승팀 프랑스에 패했다. 루이스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가 주축인 공격진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파나마는 FIFA 랭킹 69위로 한국(57위)과 A매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의 본선 진출이었던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튀니지, 잉글랜드, 벨기에에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미국을 제치고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오른 만큼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잇따라 열릴 호주, 우즈베크전은 내년 1월 아시안컵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특히 우즈베크는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빼어난 기량을 선보인 23세 이하 선수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주경마 원유일 기수
300승 고지… 다승 5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 소속 원유일(32) 기수가 데뷔 9년 만에 300승 고지를 밟았다.

원유일은 8월 31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 제8경주(900m)에서 2세 한라마인 ‘공격수’에 기승해 우승하며 대기록을 달성에 성공했다. 원유일은 출발 직후 중위권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4코너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막판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치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원유일은 올 시즌 38승, 2위 33회로 다승 5위에 올라 있다. 12%대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조교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올해의 선수는 나야” 국제축구연맹(FIFA)은 4일(한국시간) 2018년 올해의 남자 선수 후보로 실라호와 모드리치, 호날두(왼쪽부터) 등 최종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명은 유럽 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상 후보로 오른 데 이어 또 한 번 자존심 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제주의 파란하늘,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0”원 도전!
주택용 태양광



주택 지붕, 옥상, 마당, 주차장에 설치
5~7년 이면 투자비 회수

사업장 전기요금 “확” 줄이기
일반용 태양광



상가/사무실/공장/펜션/식당
전기요금 추가할인 정책 혜택

안정적인 “수익 보장” 사업!
태양광 발전소



토지 및 각종 건축물 옥상에 설치
은행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직접
모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AS담당 ○명
경력자/차량소지자/자격증소지자 우대

제주솔라에너지

www.jejesolar.co.kr

742-5775

고품질 자재 / 정직한 시공 / 확실한 AS